

금추일인 글 읽지 않으면 발의 때가 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의 때가 되고
고 엄숙하지 않으면 얼룩의 때가 되고 발의 때가 된다.
(법규정·진구품 369쪽)

94학년도 등록금 합의서 조인 각 단과대자체 대응방안 모색

등록금 14%인상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94학년도 등록금 합의서 조인식이 학교와 총학생회 및 양측대표가 모인 가운데 지난 7일 교무위원실에서 열렸다.

학교측 대표로는 민병천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한 서울·경주 양 캠퍼스의 각 처장들이 배석하였으며 학생측 대표로는 서울캠퍼스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사부위원장, 경주캠퍼스의 총학생회장, 학사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학생측은 조인식에 앞서 학생회비와 기성회비의 통폐합지 방법을 논의했던 사항과 차이가 있는 점 서울캠퍼스에서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고지에서 미리 공제되어 발부된 경주캠퍼스에서 총학생회 사선 연립없이 고지서 발부된 점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통폐합지 방법은 논의의 결과 다르지 않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서울캠퍼스에서 장학금이 미리 공제되어 고지된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들은 그동안 알려진바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다만, 등록금용 한마당 개최 부분에서 1억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학교와 총학생회는 합의서 전문을 통해 "그간에 등록금 책정 협의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공유된 내용등을 함께 인식하면서 동국의 발전과 개학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히고 지난 몇년의 경험에서 나타났던 문구상의 합의와 약속이 아닌 합리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4학년도 등록금은 14%인상고지하며 신입생에게도 동등 인상을 적용한다.

△학교는 이미 수납된 신입생 등록금의 차액분을 2학기 등록금 공제 수납한다. 단, 휴학자는 환불한다.

△실합실습비는 등록금 인상률과 동등으로 인상하며 그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학생회

비는 통폐합지한다.

△등록금용의 의지아래 동학의제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등록금용한마당을 성사시킨다. (1억 확보)

△동학의 제 주체들(총학생회 포함)이 학교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등록금발전위원회를 건설하고 등록금발전위원회의 발족식을 등록금용한마당 속에서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등록금발전위원회 위상과 사업내역 및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대학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신입생 전형료 수입, 지출내역을 등록금 책정위원회에게 공개한다.

△서울과 경주의 양캠퍼스에서 요구한 학생복지안은 장기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학생이 공동 노력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날 조인식은 이미 등록금 고지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학교 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서명이 아닌 실무책임자인

구분	서울	경주
강의환경 조성	동국관 지역에 방송시설을 설치 강의실 조명, 책걸상, 칠판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한 것은 전면교체 예술대 기숙사 문제를 예술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및 확충 PC실습실 기종교체 원호관, 진흥관, 학생회관(내부) 도색
학술및 연구환경	박물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 각 단과대학의 학술공간 및 세미나실 및 소모임실 확보를 위해 강의실 설비를 다용도로화	고시반을 포함한 법정대 단독건물 건설 마스터플랜 제시-시설 법정부담, 상경대, 컴퓨터실 확충 불교아동학과 병설 유치원 설치 T.V 방송을 위한 방송국 이전과 기자재 확보 스쿨버스 증차
문화환경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선 구획정리를 실시 T.V 방송국 실시를 위해 노력 동국관 5층 로비에 휴식공간 마련 원호관 주변에 휴식공간을 확보 학교가 운영하는 매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실시	취업정보실 마련과 취업자료의 전산화 및 관련기능을 확대 취업과의 재정지원을 확대
취업	취업정보실 마련과 취업자료의 전산화 및 관련기능을 확대 취업과의 재정지원을 확대	취업정보실 마련과 취업자료의 전산화 및 관련기능을 확대 취업과의 재정지원을 확대
도서관	장기적으로 열람실 확충 및 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실시하며 한계에 의있는 서고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각 단과대 독서실의 냉난방 시설 확충과 이용시간을 연장	본관전원 설계도면 연내작성 및 건설계획 제시 학생자치기구 PC 설치 작업용 트랙 구입 건학이념 상징물 건립위원회 발족 대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야구장 스탠드 대야웃 설치
기타	장학금 수혜자의 폭과 액수를 확대 각 학생회마다 PC를 한대씩 설치 기원학사 시설문제에 대한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학생이 공동 노력하여 해결한다.	본관전원 설계도면 연내작성 및 건설계획 제시 학생자치기구 PC 설치 작업용 트랙 구입 건학이념 상징물 건립위원회 발족 대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야구장 스탠드 대야웃 설치

학생처장의 선에서 치루겠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총학생회는 "등록 보고 및 등록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중앙당에서 갖고 이날 행사를 통해 94학년도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학원대개혁운동의 총표에 대한 대중적 공약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몇몇 단과대의 경우 현 등록금협상에 대해 반발하며 자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등록금 문제는 쉽사리 타협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리수 최초의 발심

인간의 삶은 무수한 시작과 끝의 연속이다. 크든 작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시작하고 또 끝맺을 한다. 그러한 연속의 도정이 곧 우리의 삶인 셈이지만 그것은 삶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생(生)이 시작이라면 사(死)는 그 끝이다. 동시에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작과 끝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며 동일성의 것이다.

대승교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화엄경법행품에서는 '최초로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初發心時 便成正覺)'고 설하고 있다. 맨 처음의 발심은 곧 시작이며, 바른 깨달음을 공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과로서의 세계이다. 그런데도 시작할 때 문득 결과를 이룬다고 화엄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에까지도 화엄교학으로 이름 높인 신라의 의상스님은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심하는 그 때 곧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의 명지일승법계도에서 주석한 바 있다. 깨달음이라는 공극의 목표도 결국 최초의 발심이 근본이 된다는 해석이지만, 역시 시작과 끝의 상관성·동일성의 변증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발심이란, 보리(Bodhi)의 마음을 일으키는 말한다.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구도(求道)와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 그것이 곧 발심이다. 다시 의상스님의 주석을 빌려 말한다면, 이같은 발심 없는 깨달음도 불가능하다. 최초의 발심이 중요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겨우내, 적막했던 캠퍼스에는 다시 싱그러움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대학에 갓 발을 내딛던 새 대학인들이 품어내는 싱그러움은 부럽도록 아름답다. 매년 새 봄 새하기를 맞이하면서 그 것이 바로 이 봄에 있어서, 특히 새 대학인들이 그 시작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새 대학인들의 시작하는 마음은, 화엄경에서의 표현대로라면 최초의 발심 그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최초의 발심은 분명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심을 통해 깨달음이 이루어지듯이, 새 대학인들의 인생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통해 열리기 때문이다. 최초의 발심은 곧 자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의 근본 바로 그것임을 명심할 일이 다.

李達春

동·중·한 성공적 개최 관심

지난해 등록금 협상에서 합의했던 등록금용 한마당을 협상에서 다시 합의했다.

등록금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치루어질 행사이기에 행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 또한 높다. 그러나 이 행사의 성공여부는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학교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는 학교당국이나 총학생회에서 합의한바 있으나 이의 구체적 위상이나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학교당국은 나름대로 행사의 계획을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가지 예로 학교당국에서는 행사의 기획·진행을 담당할 이벤트회사를 섭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준비정도는 이러한 학교당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구체적 행사기획도 행사준비과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행사추진에 있어 구성원들의 합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

학교발전을 위한 행사이면서 동

시에 일정정도 기금마련의 성적을 가진 행사라면 실제로 기금모금의 중추적 역할을 할 동창회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언급이 없다.

1억여원이 들어가는 행사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만 동문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필수일 것이다.

셋째,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의 결합 역시 희망적이지 않은 않다.

경주캠퍼스의 1만여명의 학생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 낼수 있는지는 전 동국인의 행사라는 행사의 대의명분보다도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 역시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제11대 총학생회 학원자주추진위원장 전현철(아간법3)군은 "실제 경주캠퍼스의 학생들을 서울로 모으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경주캠퍼스 나름대로의 행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된 등록금용한마당에 대한 낙관은 시기상조 일듯 싶다.

(이석중 기자)

동발위 구성 낙관 어려워

올해를, 지난 수년간 진행되는 학원자주추진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극복하는, 학원개혁운동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제26대 총학생회(회장 박현식·전기4)는 94학년도 등록금 합의에서 등록금발전위원회의 구성을 학교당국과 합의했다.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등록금발전위원회의 위상은 학내 제 주체가 참여하여 등록금발전·학교개혁운동의 의지를 모아내며 학내에 산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장·단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행하는 기구이다.

특히 총학생회는 이 기구를 오는 11월에 있을 총장선출까지 이끌어 가며 총장선출에 있어 실질적인 총장선출의 기구로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등록금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위상을 갖는 기구가 되려면 우선 학내 제 주체들간의 전반적인 사업의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협상에서도 나타났듯이 합의과정에서의 대중적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던 총학생회가 더구나 서로의 이해가 다른

집단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 듯하다.

특히 예년의 등록금발전위원회의 합의와 이의 구성과정에서 나타났던 학교당국의 모습을 볼때 과히 올해 등록금발전위원회의 구성역시 낙관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학교당국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등록금용한마당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등록금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미타 언급도 없다.

또 등록금 합의서에서도 "학내 제주체들이 학교발전에 공동노력할수있도록 등록금발전위원회를 건설하고 등록금발전위원회의 발족식을 등록금용한마당 속에서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등록금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사업내역 및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밖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제 주체들의 합의나 등록금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협의 내용들이 들어있지 못했다.

이는 예년의 등록금발전위원회 제기에서 나타났던 오류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최재부)

교수동정

▲박준열(산언문학) =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16차 컴퓨터 및 산언문학 국제학술회의에서 "Some Dynamic Measures for Economic Worth of an Investment"란 주제발표.

▲홍윤식(역사교육) = 박물관개관 30주년 기념행사 일환인 "고려불화복원전개최"로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부 장관 감사장 수상.

분 사 사 령

◇임기만료
▲편진장 = 바수로(아간법3 무역4)
◇신임부장
▲편진장 = 이석중(불교대 불교3)
▲편진부장 겸 사회부장 = 이재환(상경대 관경3)
▲문화부장 = 김태성(인문대 국문3) (이상 3월9일자)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학원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력으로 파헤쳐 나갈 의욕있는 분수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 응시자격: 1학년 남·여 대학생
- ③ 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진기자
- ④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관사신 1매 (지침서는 본사 홈페이지에서 배부중)
- ⑤ 원서접수: 서울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 ⑥ 시험일자: 서울 3월17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7일(목) 오후5시
- ⑦ 시험과목: 1차 필기-논술(문화·사진지침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 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호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21세기 한국의 섬유산업 - 삼양의 첨단기술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출한국의 기동 섬유산업-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메이커인 저희 삼양사는 섬유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끊임없는 첨단기술의 개발- 그것은 바로 한국 섬유산업 리더로서의 책임입니다.

천연섬유 모방의 합성에서 이젠 초월하는 신합성으로!

이름조차 낯선 항균방취(抗菌防臭)섬유, 축열섬유, 초극세사, 이형단면 섬유, 미다공질 섬유, 고수축 자기신장 섬유 등 첨단섬유들. 천연섬유에는 없는 새로운 형질과 촉감을 가진 새로운 합성섬유 즉 신합성(新合纖)으로서, 이 모두가 삼양의 기술이 선도하는 제품들입니다.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에 대비하는 저희 삼양그룹의 『중앙연구소』, 『의약연구소』, 『섬염연구소』 등... 신물질·신소재의 부단한 개발은 물론, 2천년대 세계 5대 메이커를 목표로 삼양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 합작회사를 설립, 해외 생산기점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파키스탄 소재 Dewan Salman Fiber 합작회사)

▲건염(乾煉)섬유: 실크의 촉감과 정감은 물론, 스킨메 사각리라는 소리까지 재현한 신합성(1,000배 확대사진)

삼양그룹

주식회사 삼양(化纖) · 식품 · 의료 · 환경사업 · 삼양화학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섬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전북특수금속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대한 실업 피아버 · 삼양그룹연구소 · 영림회 · 수당정화회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770-2057

‘근본적인 공간문제 해결 바란다’ 소극적인 고통분담론은 안돼

예술대는 동악내에 기건물 투쟁으로 널리 알려왔다.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동국미술문화관 건립이 착공됨에 따라 미술학과 이전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투쟁의 신물인 기건물로 옮겨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기건물 설계도면에 공대의 학생회실도 10개가 배치되었고 기계실, 제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현재의 예술대 학생회장과 공과대 학생회장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도대체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측이 제출했던 것은 기건물과 공과대를 포함시켰던 것이었나!

지금 음악의 공간은 최악의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과대의 기계와 중원문제, 경성대, 아대, 불대 등 공간문제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고민을 해야 할 학교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고통분담론을 외치고 있다. 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상황에서—모든 건물이 재단의 소유로 되는데—공간이 없질 않느냐며 서로 양보만 하라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공간문제의 해결은 자칫 학생들의 자리다툼으로 변하기 쉽다.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은 합계성을 갖기 마련인 것이다. 학교측은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단은 증원시켜 보자라는 식이 아니라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측은 지금 대안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중필
(예술대 미술학과)

복학소감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복학을 하고 나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학교를 한번 둘러봤다. 새로 신축한 하안색의 자연과학관, 노천강당도 새로 짓고, 학생회관도 증축하고, 정문쪽에 서 있던 가로수들도 은행나무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래간만에 둘러보는 학교의 모습

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때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복학을 하고 나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학교를 한번 둘러봤다. 새로 신축한 하안색의 자연과학관, 노천강당도 새로 짓고, 학생회관도 증축하고, 정문쪽에 서 있던 가로수들도 은행나무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래간만에 둘러보는 학교의 모습

2~3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른 삶의 무게로 가슴한쪽을 무겁게 하지만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군대에 가기전에 못해 봤던 일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가지 희망사항들을 그려본다.

복학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괜히 나이들어 보이고 시커먼 군용야전상시가 머리속에 떠오르고 총각이 아닌 아저씨가 생각난다. 이제 겨우 께어 오십인데 아저씨는 웬 아저씨!

너무나 많이 변화한 주위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복학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가보고, 옛날처럼 술도 한번 마셔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최낙형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光風動春
송진세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83졸)

작가약력 1938년생. 조선일보 현대작가전, 국전, 동남아 순회전 (59~66년) '파리아트 83' '이미지 84' 현재 홍익대 미술교육원,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출강

‘신설학과 교육환경 마련하라’ 학회실 조차 부족한 상태

아간강좌 학과신설에 대한 논의는 여러차례 있어 왔다. 특히 올해 첨단과학 분야(반도체 과학과 전산통계학과)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북한학과 신설은 앞으로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아간강좌의 올바른 모습, 아니 민족대학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본다. 하지만 지금 신설3개과의 현실은 새내기들의 생활공간 학생회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첨단과학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학문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교수님, 다양한 교과 과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시 되는 이공계통의 학문적 질과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습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교당국의 모습이 규탄되어야 할 시점이다. 학교와 재단은 근로민중들의 넓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 속에서 보통 주간학부의 신설

보다도 아간강좌의 과중설의 용이함을 이용하여 우리들이 인정하는 3개과신설의 필요성보다는 손익계산이 숨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이렇듯 학교당국과 재단의 모습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어서 학생들과 마찰을 해왔을뿐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할 교육환경, 교수님, 학생회실, 교과과정, 실습실 마련에 대한 학교측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요구안에 대한 여론 수렴 역시 없다.

학교의 대표가 되기까지는 무척 어려운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만큼 학생회 운영이 어렵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전 졸업식날 우리는 학생회 건부가 1년 동안 불성실하게 되던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입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곽유찬
(아간강좌 영문과)

등록금 합의 근거 부족 대중에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자기 사안이 안나왔다고 책상을 치며 전대 졸준위를 성토하지만 앨범 배부는 새로 많은 졸준위가 함으로써 하소연 할곳 없어 울상만 짓던. 졸업생들이 눈에 선하다.

14% 인상분만큼 학생의견이 담겨야 하는 복지요구안 입안과정이 한 마디로 상충부의 독단적 결정은 아니었길 바란다.

무엇든 모든 일을 할 때는 일의 경중과 선후를 따진 뒤에 중요한 것과 급한 것부터 해야한다. 그동안 방학중이어서 경주록 복지요구안을 학생회 간부 몇명이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제 3월이다. 학교당국이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선택은 과연 일의 경중과 시급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여부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검증받기 바란다.

김영진
(상경대 경영학과)

총학은 각 학생회 목소리 받아 안아 투쟁하길

신입생들의 밝은 표정이 새봄의 기운을 더욱 활기치게 한다. 그런데 얼마전 총학생회 운영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총학생회의 일방적인 등록금 합의 발표 소식과 연이어 터져나오는 반대입장의 단과대, 대학원 학생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이 생각이 난다. 등록금인상의 주된 책임자인 재단과 학교는 뒷전인 채 또다시 학생들간의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우려에서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의와 14%의 발표와 등록금발진위원회 건설 등록금총환마당 행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과대 학생회는 학우들의 합의에 기초한 고지서 합의발부의 원칙이라 14%인상근거 제시의 동발위 건설계획 등 이후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학생회는 등록금협상과정에 배제됨을 주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각 학생회의 주장만큼이나 이번 총학생회의 합의발부는 무리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의 첫째는 극명하게 들어오는 학생회간의 공익적충돌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합의의 내용이나 과정에서 각급학생회의 요구안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합의한 인상률 14%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셋째는 총장선거 합의된 내용인 등록금전원회, 등록금총환마당등의 건설경로를 포함한 투쟁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된점이다. 등록금 투쟁은 한해의 회원자주회 투쟁의 출발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장선거라는 중대한 과제를 두고있는 동악의 등록금투쟁은 민주적인 총장선거의 내용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의에서 더욱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서처럼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학우들에게 알려내면서 대학교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상충협상을 통한 제도기구 정취의 한계를 몇년의 동악학자주 역사에서 얻어낸 총학생회는 더욱 신중하고 모순으로 각 학생회의 목소리를 받아안고 투쟁을 준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세웅
(사범대 국교과)

동/문/칼/럼 '장애인을 가족처럼'

몇년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민영방송인 sbs가 '장애인을 가족처럼'이라는 주제로 연중캠페인을 벌였는가 하면 각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의 양이 과거와는 달리 부쩍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 추세다. 4백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1백만명 정도다. 반면에 유엔은 전세계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근거할 때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4백만명에 이른다는데 이 당시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현격한 입장차의 이면에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불만이 깔려 있다. 이들의 정치적 불만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전개된 소외계층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최하층의 위치에 놓여 있다. 도시빈민 중에서도 가장 주변적인 집단인 이들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장애인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말할 것도 없고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도 관심받지 못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들의 정치적인 자각과 88년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비로소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는 분위기가 활기차게 일어났다. 장애인중 말은 수는 노동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체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정우영
(장애인복지신문사 편집인·경제 86졸)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회 분열 비판

요즘을 역시 동악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회와 학교당국의 등록금 합의 문제인것 같다. 지난번 신문(제1142호)에 이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가 실렸다.

학생회 분열을 비판한 기사다. 학생들이 민고 뽑아준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당국(재단)에 맞서 등록금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서로 비난하며 분열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을 민고 뽑아준 우리 동악의 학우들을 우롱하는 꼴밖에 더 되겠는가?

본인은 물론 동악인들은 이런 학생회의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우리 학생회 임원들이 단결하여 우리 동악을 위해 좀더 열심히 일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종호
(이과대 통계학과-본사 모니터)

'동국기네스' 새롭게 부각

지난호 동대신문(1142호)의 8면(문화면)에 새로이 모습을 드러낸 '동국기네스'는 유물이나 학교소장품에 대해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인화복합'을 심어 입학식 날 배포함으로써 신입생들의 손에서 손으로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입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글(예를 들자면 학교 소개나 학교 상징물에 대한 소개등)이 게재되어야 할 것인데 비해 예비대학에 대한 이야기로 한면이 가득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반면 올해 첫출발한 불교 문화대의 예비대학 소식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으로서 첫출발하는 불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현
(불문대 불교학과-본사모니터)

목역골

축하합니다.

- 새내기 정치학도의 첫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현실돌파, 정치적 신화 창조는 선봉에서 곳곳에 전진하시길. -선배 정치학도
- 멀리 강릉도 강릉에서 유학하신 사랑스런 후배님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쁜선배가
- 이화관의 3월3일 생일을 축하하며 떠나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길..... 생일 축하해
- 호우회 21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찬 대학 생활보내세요. -회장
- 의정부지역 고등학교에서 동대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동대의 주체적 일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역선배드림
- 국교과 93의 3월 탄생일을 축하해요. 김선욱(9일), 임현정(21일), 남상필(22일), 손선영(28일).

동/악/광/장

귀여운 94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생의 한가운데서 우리하니되어 시작의 준비를 합시다. -국사 92일동

고미사 94학번 입학을 축하하며 열심히 하세요. -고미사 89일동

수학교육과 신입생 환영회가 3월10일날 있겡량요.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수학교육과 재학생

94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영문과 학생회

3월10일은 관경'대모' 92에영이의 생일. 축하축하! -관경 92 Cupid

불교이동학과 94학번 새내기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3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육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국문과 애벌레 합창

3월16일 알삼 회색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알삼사

권안북 3월13일 드디어 생일을 맞이합니다. 인복이 그때 모든 빛을 잡아 주겠다. -L-E-O그리고 생화학

은방골

축하합니다.

2기가 되시는 전산통계학과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산통계 2년

경민아 너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나기-쉬타

동국대 TIME연구회 11대 임원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석정의 부장

R.O.T.C 34기의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명예 위원장

우리들의 '자취생활' 시작을 축하해 주세요. -영희-혜현-은주

D.U.T.C 8-9기들의 복학을 축하하며 멋진 추억을 만들기 바라며..... -멋진 놀이

수고하셨습니다.

제1대 불교문화대 예비대학을 훌륭히 치른것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불교이동학과 독선이 아홉마들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불교 이동인

동국연극회에서 제8회 신입생 환영공연 시연회를 오는 14일 5시에 시작합니다. '어부지름때 까지' 라는 제목의 이번신입생 환영공연은 앞을 못보는 한 여인과 세익당 사이의 심리전을 즐겨리보 공연은 시연회에 이어 15일에서 19일까지 5일동안 계속됩니다. 더불어 동국연극회를 함께할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집니다. -동국 연극회

풍물대 불화에서 신참 15기를 모집합니다. 관심은 큰 행동으로 실행하십시오. -불휘 상쇠

94학번도 언-협의 새로운 출발을 기원합니다. -?

동국불림 일굴원반 불시다. 3월9일 오후5시 동아리방에서 정기총회 있음. -회장

지훈 선배님, 군대 잘 다녀오세요. -DUCC 8기

알립니다.

백상!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용기를 내어 학생회관 6층까지 올라오십시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상응원단

통계조사연구회에서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1층에서 기다립니다. -짱

사람의 수학교실 기초반 8기를 모집합니다. 손으로 나누는 사랑을 배워보세요. 17일(목)5시 공대(E503)에서 만나요. -손짓사랑회

'바람소리'가 하늘을 삼척할 새내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지하층 입니다. -바람소리일동

불교학생회에서 참신한 94학번 佛子님들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 모두 오세요. 학생회관 3층입니다. -한회계학우

여명인들이! 밝아진 94년을 맞이하여 다시 힘찬 발걸음과 함께 솔한번 보지게 먹어요. -예쁜이

그리고...

회계(주)의 화회장 응원을 기원합니다. -회계(0) 정부 학생회장

잡·세 '92위세량아 군대 잘 다녀와, 건강하고... 우리가 늘 널 생각께. 92교과3

회계학과 새내기 여러분 등쳐다지지 말자. 선배를 주머니 사정 좀 봐줘라. -한회계학우

여명인들이! 밝아진 94년을 맞이하여 다시 힘찬 발걸음과 함께 솔한번 보지게 먹어요. -예쁜이

탁명환씨 피살을 계기로 본 한국 종교

종교문제, 사이버만의 것이 아닌 기성 교단 해당 영생교, 인기부 조계종, 울곡비리 교회, 강남고위층



◇종교는 개인의 영리 영달의 수단은 아니다. 탁명환씨 피살사건은 종교단체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단지 사이버종교나 깨라는 결론은 아닐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엔 언제부터인지 어떤 종교에 관해서건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미명 아래 종교가 사회적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종교란 신도는 물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눈에도 성스러운 영역이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종교가 비합리주의적 범주에 갇혀 있거나, 혹세무민으로 신도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부녀자나 청소년층을 강제로 끌어들이고, 사기 돈벌이와 교세확장에 몰두하거나, 배교자에 대한 응징이 공포 전인처럼 집단살인으로 추정되는 범죄가 있어도 그 실상을 파헤치는데 이 사회는 무능력했음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군사정권에 마친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구한 집단단종, 테러의 위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특정종교나 교주의 사이버성이나 이단성을 주장할 도리가 없었다. 교세가 크고 신도가 많으면 그것이 기성, 신종, 사이버, 이단을 따질 것 없이 정치세력화하고 사회적 압력단체가 될지라도 정치인이나 국가권력기관도 그들을 무조건 행동을 하기 어려웠고, 또 그것을 이용해 종교집단은 항상 대세측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많은 종교가 인간 사회의 '소금'노릇을 하는 대신 '필요약'의 지경에 이르렀어도 아무도 그들을 응징하는 데 나설 수 없었다. 이러한 종교문제는 비단 사이버종교만의 것이 아닌 기성교단에도 해당하는 심각한 것이다. 이를 현재 나타난 사이버종교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입과 동시에 기성종교가 제기할 수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해 종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써어진다.

2. 종교문제의 성격화

얼마전 피습, 살해되기 얼마전 종교계 신문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생교와 관련해 '영생교는 인기부등 권력층의 요인에게 접근해 극우단체로 위장 친여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조계종 조계사 전각신도회장이 울곡비리 관련 구속되면서 광주 상무대 건설자금이 구

모사회의 불시자금으로 세택과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정대철 민주당원이 폭로한 바 있다. 또한 강남의 비대해진 교회들은 고위층의 인사들이 많이 다녀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소문도 있어 종교와 정치권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문제가 어쩌서 성격화 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종교는 신도들을 통해 막강한 자급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정치권과 밀착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악역과 악역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외중에 각종 사이버종교들이 끼어들어 종교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버종교문제는 권력구실을 못하고 타락해가는 기성종교의 책임인 바 그 문제의 본질에는 정치적인 것이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종교문제가 성격화 되어가는 데에는 체제와 결탁된 종교의 세속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3. 사이버종교와 한국종교의 비리

한국종교의 문제는 그 문화적 특성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과 경향을 보인다. 거기에는 부패의 측면도 있으며 비도덕적, 반사회적 문제 또한 함유되어 있다. 조종원(한양대)교수는 한국종교비리의 유형을 '체제와의 결탁' '종교의 정치화' '기복성등을 통한 사기, 치부' '침한 분파성'을 통한 '종교내분' '종교귀족의 형성' '집단지주의' '내형화, 상품화 물질만능화' 등을 꼽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체제와의 결탁 및 정치화'의 경우 정치권의 이해와 종교계 상층부의 기득권유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형성되어온 것이다. 과거 정권의 기반이 약했던 군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종교를 끌어들이고 이것을 종교가 받아들임으로써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종교는 심한 경제적 빈부의 차이 각종 인권의 유린등의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음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도의치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교밀착(政教密着)은 다른 여러 종교문제를 정권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현재에 이르렀고 것이다.

4. 종교문제의 사회화와 그 대안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문제가 성격화되

어는 측면에는 정치와의 결탁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종교의 정치화는 사이버종교가 사회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종교교 스스로가 앞서 지적된 문제를 깨닫고 개혁을 내서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종교교 스스로가 앞서 지적된 문제를 깨닫고 개혁을 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연구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종교비리고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홍보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종교개혁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종교계를 찾아드는 정치세력들의 모습을 없애야한다. 이는 종교계의 각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철스님이 갈라졌듯이 종교인들의 제자리는 정치무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이다. 이러한 전제와 더불어 몇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무행정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무행정이 중앙집중화되어온으로써 자연스레 체제지향적이 되어왔던 것이다. 둘째, 종교의 공공성 확보 및 중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종교단체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셋째, 종교성직자 양성교육기관의 요건을 강화 저질 성직자들이 양성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넷째, 종교교육을 실시,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간략히 사이버종교가 나타내게 된 종교의 문제와 한국종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교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종교문제는 종교 인간의 정서와 마음의 문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을 스스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트인 눈과 귀 그리고 성직자들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옛 선인들이 말했듯이 무소의 뿔처럼 무소정신으로 정진하는 정신이 아쉬운 때다.

(이석중 기자)

신입생 예비학교의 나아갈 길

다채로운 기획... 추가등록으로 신청 저조 영역필수·전공과정등 학업기초 다질 강좌 필요

겨우내 울췌했던 학교가 개강과 더불어 활기에 넘치고 있다. '누구야 안녕' '선배님 안녕하세요' 등 여기저기서 재잘거리는 소리와 이곳저곳 초기실 가득 찬 새내기들의 눈빛으로 넘실댄다. 말 그대로 대학 '새내기인' 94학번 학생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대학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때까지의 생활을 되돌아 보았을때 교정의 모든 모습과 생활들이 새롭기만한 새내기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만 특히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동질함까지 지니게 된다. 통계학과 신입생인 신은정양은 영역필수인 일반수학 강의를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학 강의중 설명을 영어로 해서 들었어. 또 고등학교 수학Ⅱ시간에 미적분을 갖게 공부할때까지의 생활을 되돌아 보았을때 교정의 모든 모습과 생활들이 새롭기만한 새내기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만 특히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동질함까지 지니게 된다.

학생처(처장=노원삼, 식품공학)의 교무처(처장=정병조, 국민문리학과)에서는 신입생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컴퓨터 특별강좌와 사색의 초대, 스키감소 등의 교양 강좌를 계획하고 신입생 모두에게 특우장 및 친견 지원 쓰기과제 내 주었다. 이중 스키감소(2월3일~5일)와 사색의 초대(2월1일~3일)는 여러차례 계속되는 추가등록

에 따라 실시되지 못했고, 컴퓨터 강좌만 지난 2월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컴퓨터 강좌 또 한때요? 늦게 등록해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2월4일까지 신청접수순으로 각반 1백명씩 3백명만이 강의 들을 수 있어 그나마 실시된 컴퓨터 강좌도 추가 등록한 학생에선 신청기회조차 줄 수 없었다. 한편, 신입생 전원에게 과제로 주어졌던 친견문 쓰기과제 특우장 제출에 있어서 신입생들의 반응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같아 좋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단과대나 과차원에서신입생대상으로 예비학교를 실시하는데대학교와 비교해 보았을때 본교의 컴퓨터 강좌 등은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어서 바람직할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학업문제가 어느정도 기초를 잡아줄수 있는 강좌가 계획되지 않고, 교양강좌가 단발성으로만 그쳐 얼마나 새내기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다.

한양대는 지난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전의 오리엔테이션을 혁신, 수학Ⅱ강좌가 포함된 '예비대학'을 개설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는 이공계 수업에 필수적인 수학Ⅱ가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자, 전공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

고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습득해 전공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본교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한양대의 같은 학업관련 강좌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수학 교재인 '미분적분학'은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학생들이 수업에 받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고, 고등학교 교과과정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된다"며 "미분적분학이 부족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 여겨지고, 올해부터는 수능시험이 문과과 따로 출제돼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거라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예비학교나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이 등록한 후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 여겨지고, 올해부터는 수능시험이 문과과 따로 출제돼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거라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예비학교나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이 등록한 후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 여겨지고, 올해부터는 수능시험이 문과과 따로 출제돼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거라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권주영 기자)

'가출'과 총운위

동악로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은 "이 시안은 언제까지 갈 수 없다"며 거수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몇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같은 이유로 운영위원회의를 제기했다. 이날 문제가 됐던 안건은 학생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 인준이었다. 이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몇몇 단과대학생회장들은 단과대 복지주체들의 임시위원장 추천에서 한승우(야간경제4)군 보다 박대용(물고4)군이 더 많은 복지주체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총학생회에서 왜 한군을 임명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고정환(야간경제4)부총학생회장은 "박대용군은 총학생회의 학부 개혁 방안에 반대했던 인물이며 학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군이 제출한 학부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단과대 학생회장의 지적에 한군이 직접 참석시켜 이에대한 방안을 들어

보러했으나 한군의 사정으로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 해지자 고부총학생회장은 "이 시안은 언제까지 갈 수 없다"며 거수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몇몇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고부총학생회장은 "너무나 급한 사안인만큼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거수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몇몇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고부총학생회장은 "너무나 급한 사안인만큼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거수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사회단신

관변단체 지원 중단

정부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해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1백여개에 이르고 있는 관변단체는 과거 봉사활동, 기념사업 등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관건선거에 이용돼 선거실적을 교묘하게 어지럽히기도 해 국민들의 감지들을 사정을 받아왔다. 이들 관변단체는 지원이 중단되면 자립기반이 없어 거의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병 대책 위한 결의대회 열려

직업병대책과 재취업지원정책을 위한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오후2시에 충무공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직업병대책 고용보장정책을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원진문제와 윤리법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후원한다. 산재조합법원심판 계획서 공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금 재취업보장, 설립된 재단법인에 원진비대위(원진) 참여 보장등을 요구하며 탐공공원, 중각,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하며 대국민 선전활동을 벌인다. (사회부)

1994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1. 징병검사 대상자
75년 1월1일부터 75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19세 대학 재학생 포함)
74년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현역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보충역					
고퇴							
중졸							

3. 학력과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 대상 ○ 전사,수적 또는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제제중 1인
○ 중학중퇴이하자, 2년이상 수행자(집행유예자 제외)
제2국민역대상 ○ 고아,귀화자,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4. 징병검사 연기등 출원안내

◆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또는 복역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일 5일전까지 본적지 시·군·읍·면·동 단계에 연가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청장과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가가능.

◆ 거주지 징병검사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의 징병검사 개시 20일전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에 거주지 징병검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적지 징병검사 일자가 지난 사람은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지원
현역병으로 임명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복무를 마친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1년 6개월내의 기간동안 징사출·퇴근하면서 항모방위와 관련한 분야에 복무하는 상

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상근예비역 복무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병 조기입영
19세자로서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연
징병검사를 받은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재학연영(전문대학: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해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재학생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시·군·읍·면·동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가능

병 무 청 장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시·도	시·군·구	검사기간
서울	관악구	1.31-2.19	충청	충청남도	5.9-5.19	전북	전북	8.10-8.19	경남	경남	3.23-3.30
	강남구	2.21-3.8		충청북도	5.20-5.25		고령군	8.13-8.16		거창군	3.31-4.7
	강동구	3.9-3.8		충청남도	5.26-5.29		거창군	8.17-8.18		거창군	7.25-7.30
	강서구	3.9-4.28		충청북도	5.30-5.31		고령군	8.19-8.25		거창군	8.8-8.8
	강북구	3.15-4.28		충청남도	5.32-5.33		고령군	8.26-8.29		거창군	8.13-8.18
	강북구	4.29-5.17		충청남도	5.34-5.35		고령군	8.30-8.31		거창군	8.19-8.24
	강북구	5.19-6.15		충청남도	5.36-5.37		고령군	8.32-8.33		거창군	8.25-8.30
	강북구	6.16-7.30		충청남도	5.38-5.39		고령군	8.34-8.35		거창군	8.31-8.36
	강북구	7.22-8.22		충청남도	5.40-5.41		고령군	8.36-8.37		거창군	8.37-8.42
	강북구	8.23-9.3		충청남도	5.42-5.43		고령군	8.38-8.39		거창군	8.43-8.48
강북구	9.3-9.17	충청남도	5.44-5.45	고령군	8.40-8.41	거창군	8.49-8.54				
강북구	10.1-10.22	충청남도	5.46-5.47	고령군	8.42-8.43	거창군	8.55-8.60				
강북구	10.24-11.5	충청남도	5.48-5.49	고령군	8.44-8.45	거창군	8.61-8.66				
강북구	11.7-11.17	충청남도	5.50-5.51	고령군	8.46-8.47	거창군	8.67-8.72				
강북구	11.18-11.27	충청남도	5.52-5.53	고령군	8.48-8.49	거창군	8.73-8.78				
강북구	11.28-12.9	충청남도	5.54-5.55	고령군	8.50-8.51	거창군	8.79-8.84				
강북구	12.10-12.20	충청남도	5.56-5.57	고령군	8.52-8.53	거창군	8.85-8.90				
강북구	12.21-1.1	충청남도	5.58-5.59	고령군	8.54-8.55	거창군	8.91-8.96				
강북구	1.2-1.10	충청남도	5.60-5.61	고령군	8.56-8.57	거창군	8.97-9.2				
강북구	1.11-1.17	충청남도	5.62-5.63	고령군	8.58-8.59	거창군	9.3-9.10				
강북구	1.18-1.27	충청남도	5.64-5.65	고령군	8.60-8.61	거창군	9.11-9.16				
강북구	1.28-1.30	충청남도	5.66-5.67	고령군	8.62-8.63	거창군	9.17-9.2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68-5.69	고령군	8.64-8.65	거창군	9.23-9.2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70-5.71	고령군	8.66-8.67	거창군	9.29-9.3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72-5.73	고령군	8.68-8.69	거창군	9.35-9.4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74-5.75	고령군	8.70-8.71	거창군	9.41-9.4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76-5.77	고령군	8.72-8.73	거창군	9.47-9.5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78-5.79	고령군	8.74-8.75	거창군	9.53-9.5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80-5.81	고령군	8.76-8.77	거창군	9.59-10.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82-5.83	고령군	8.78-8.79	거창군	10.5-10.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84-5.85	고령군	8.80-8.81	거창군	10.9-10.1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86-5.87	고령군	8.82-8.83	거창군	10.13-10.1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88-5.89	고령군	8.84-8.85	거창군	10.19-10.2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90-5.91	고령군	8.86-8.87	거창군	10.25-10.3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92-5.93	고령군	8.88-8.89	거창군	10.31-10.3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94-5.95	고령군	8.90-8.91	거창군	10.37-10.4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96-5.97	고령군	8.92-8.93	거창군	10.43-10.4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5.98-5.99	고령군	8.94-8.95	거창군	10.49-10.5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00-6.01	고령군	8.96-8.97	거창군	10.55-10.6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02-6.03	고령군	8.98-8.99	거창군	10.61-10.6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04-6.05	고령군	9.00-9.01	거창군	10.67-10.7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06-6.07	고령군	9.02-9.03	거창군	10.73-10.7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08-6.09	고령군	9.04-9.05	거창군	10.79-10.8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10-6.11	고령군	9.06-9.07	거창군	10.85-10.9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12-6.13	고령군	9.08-9.09	거창군	10.91-10.9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14-6.15	고령군	9.10-9.11	거창군	10.97-11.0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16-6.17	고령군	9.12-9.13	거창군	11.03-11.0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18-6.19	고령군	9.14-9.15	거창군	11.09-11.1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20-6.21	고령군	9.16-9.17	거창군	11.15-11.2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22-6.23	고령군	9.18-9.19	거창군	11.21-11.2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24-6.25	고령군	9.20-9.21	거창군	11.27-11.3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26-6.27	고령군	9.22-9.23	거창군	11.33-11.3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28-6.29	고령군	9.24-9.25	거창군	11.39-11.4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30-6.31	고령군	9.26-9.27	거창군	11.45-11.5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32-6.33	고령군	9.28-9.29	거창군	11.51-11.5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34-6.35	고령군	9.30-9.31	거창군	11.57-11.6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36-6.37	고령군	9.32-9.33	거창군	11.63-11.68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38-6.39	고령군	9.34-9.35	거창군	11.69-11.74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40-6.41	고령군	9.36-9.37	거창군	11.75-11.80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42-6.43	고령군	9.38-9.39	거창군	11.81-11.86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44-6.45	고령군	9.40-9.41	거창군	11.87-11.92				
강북구	1.31-1.30	충청남도	6.46-6.47	고령군	9.42-9.43	거창군	11.93-11.98				

◇정보화사회의 대학생문화

“대학은 나만의 공간...”

정보기기 발달, 자기본위주의 문화형성 활자보다 영상매체와 친숙한 ‘신인류’

대학의 대중화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결정적인 형태로 대학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른바 공업화, 근대화, 도시화, 대중화, 국제화 나아가 정보화 등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는 가속도적(加速度的)으로 변용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은 현대세계의 위대한 제도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굳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노획되고 경직화되어 정치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저개발지역 내지 후진적 부문으로서의 양상을 나타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른바 ‘대중사회’의 등장에 더불어 대학은 커다란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양적인 변화인 것이며 질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대학의 대중화현상을 들 수 있다.

대학사회가 소위 ‘엘리트형’에서 ‘메스형’으로 변천하고 있다는 의미를 냉철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의 본질인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취직이나 결혼을 위해,

혹은 청춘을 자유롭게 즐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많은 학생들에게는 지난날의 다수 대학생들에게 보장되었던 사회의 지도적 지위가 약화되지 않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학생들의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낳게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학의 대중화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거나 특히 대학생 특유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등 이른바 학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대학생의 특징

생각컨대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정보의 홍수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른바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성장한 젊은이들은 특히 TV와 함께 놀고 자했으며 이제는 영화,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영상매체들과 함께 쉬는 영상세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문자매체로 받아 들이는 기성세대와 달리 영상문화를 통해 사교나 행동양식에까지 영향을 크게 받고 자란 ‘신인류’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의 문화의 특징을 간직하면서 자란 젊은이들의 퍼스널리티를 ‘조작적(操作的) 퍼스널리티’라고 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가지 정보처리기에 둘러 싸여 성장하였으며 그 핵심은 ‘조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원칙이 내면화하여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세대란 것이다.

또 하나의 성질로서 유동적 퍼스널리티를 들 수 있다. 고도로 정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관성보다 변화에 적응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유동적 상태를 선호하며 적극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지닌다.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의 약함은 대립이나 갈등을 현재화(顯在化)시키지는 않지만 매력이나 권위에 복종하기 쉽다. 더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계속 연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로써 현실과 상상, 직접적 커뮤니케이션과 간접적 커뮤니케이션, 실제와 형식의 경계가 애매하게 된다.

요컨대 확실한 것의 집착이 소실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지나치면 허구세계의 일상화를 가져오게 된다.

영상세대로서 젊은이, 그들의 조작적, 유동적 퍼스널리티의 특징은 정보환경이



◇정보화 사회속에서 영상세대로 자란 젊은이들에게 대학이란 곳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에 적합하다.

◇정보의 홍수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있어 TV, 비디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영상매체는 정보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 경향이거나 학생문화 형식에 그대로 반영된다.

대학생문화의 특징

오늘날 대학생문화가 지니는 특징으로 먼저 그림이나 소리를 위주로 한 영상문화에는 익숙한 반면 인쇄문화와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대학생과 만화와의 유착을 들 수 있다.

소위 만화의 천국인 일본의 경우, 대학생이 한달 평균 31권의 만화를 읽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국민학생의 3.8권과 비슷한 이 수치는 영상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컨대 TV나 만화와 같은 영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적절한 것은 중학생 정도까지인 것이며 성숙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사고력과 원숙한 정서의 표현력인 것이다. 그것은 혼자서 된 문장을 읽음으로써 터득된다.

따라서 영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인 만화에 대한 대학생의 유착은 점차 사고력과 표현력의 미숙을 초래하여 연령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이에 못미치는 아동화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그들의 심성을 자기본위로 또한 감각우위의 인간으로 만들게 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학생문화의 특징은 대학생의 음악애호이다. 그런데 그것은 특이한 방향과 형태를 지닌 것 같다. 즉 음악가의 연주회나 오페라 공연을 빠짐없이 본을 지닐하며 관람하는 능동적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의 음악애호는 이른바 자기본위주의(Meism: 자기) 주역이며 자기목적의 충족만을 바라는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TV, 라

디오, 비디오, 퍼스컴, 전자오락기 등과 같은 소위 자동응답기에 친밀감을 느끼며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기기는 무슨 일이든지 버튼 하나만 자기마음대로 조작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청년에게 대학이란 공간은 바로 적적인 곳이다. 자기의 주변을 이런 기기로 가득 채워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느긋하게 자기만의 세계속에 잠기려고 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에 딱 들어 맞는 것이 음악기기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워크맨이다. 워크맨이아날로 미미즘의 클라리맥스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정보화된 대성문화의 총인인 ‘개성’이라 오케도 워크맨과 같이 패적인 특징공간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라는데서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만족’, ‘자기도취’의 세계를 제공하며 나아가 개인관계로부터 도피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이와 음악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디스크가 아닌가 생각된다. 테피어 춤추는 디스크는 얼핏보면 그를 사이에 연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한사람 한 사람의 자기본위의 출현이 있을 뿐이다.

대학생들의 복장도 다양하며 화려해지고 있다. 다만 그 패션의 정체는 메스 미디어에 의해 정보화된 정보상품에 만족감을 오로지 구한다. 나이가 상층이 아니고 패션잡지가 제공하는 정보 그것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패션이란 원래 자기주장이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패션이란 인간의 살아가는 형식의 표현인 것이다.

주제적 미디어 수용자

무릇 메스컴의 고도의 발전은 ‘감각인

간을 증가시키며 아울러 사고형 인간을 감소시키게 한다. 생각하는 시대에서 느끼는 시대(각각의 시대)로의 이행은 학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영상이 없으면 금단현상을 보이는 ‘시청각 알코올 중독’중세인 사람도 젊은층에 많다고 한다. 현세대가 즉흥적, 감각적, 비논리적 그리고 끈기부족한 것은 상당부분 영상매체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허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정보를 선택하는 주체성을 가져야 하며 미디어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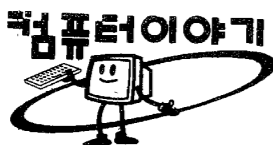
주제적인 미디어 선택 내지 미디어 행동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에게 참모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미디어정보를 자기다 다시 프로그램화하여 접하는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한다.

마음을 비워 눈과 귀에 거슬리는 미디어도 접하며 문제의 전체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수의 미디어의 병용이 요망된다.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지리한 주제적 미디어 수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롭고 비판적, 유동적인 태도가 점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영상세대인 학생문화의 주인공들은 무엇보다도 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와 친숙하여야 한다. 독서에 몰입하며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불거질만한 국제정세의 수집, 외국문화의 선별적인 수용을 위해서 외국어의 효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정윤부

(정보산업대학원 원장·행정학)



컴퓨터 사용의 새출발

IBM 매킨토시, 컴퓨터 양대 흐름 사용목적 결정 후 기종 선택 바람직

에 연연해 하기 이전에 자신이 주로 활용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IBM PC와 ‘매킨토시’로 구별되는 컴퓨터의 양대 흐름은 사용자에게 오히려 손쉬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매킨토시는 전자출판(DTP), 그래픽스 응용, 멀티미디어분야에 뛰어난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GUI(Graphic User Interface)라는 그래픽 환경을 지향했기 때문에 IBM PC에서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툴(tools) 제공은 물론 거의 모든 실행과정을 단기간내에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탁월한 그래픽 처리는 예능 계열 전공자들에게 특히 심본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BM 계열의 PC는 국내 컴퓨터시장의 70~80%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으로 보급돼 있다. PC는 텍스트위주의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컴퓨터 부하를 요구하지 않으며

워드 프로세싱이나 스프레드시트의 작업에 보다 유리하다. 처리속도 또한 매킨토시보다 일반적으로 빠른 편이다.

IBM PC나 매킨토시는 이렇듯 각각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동등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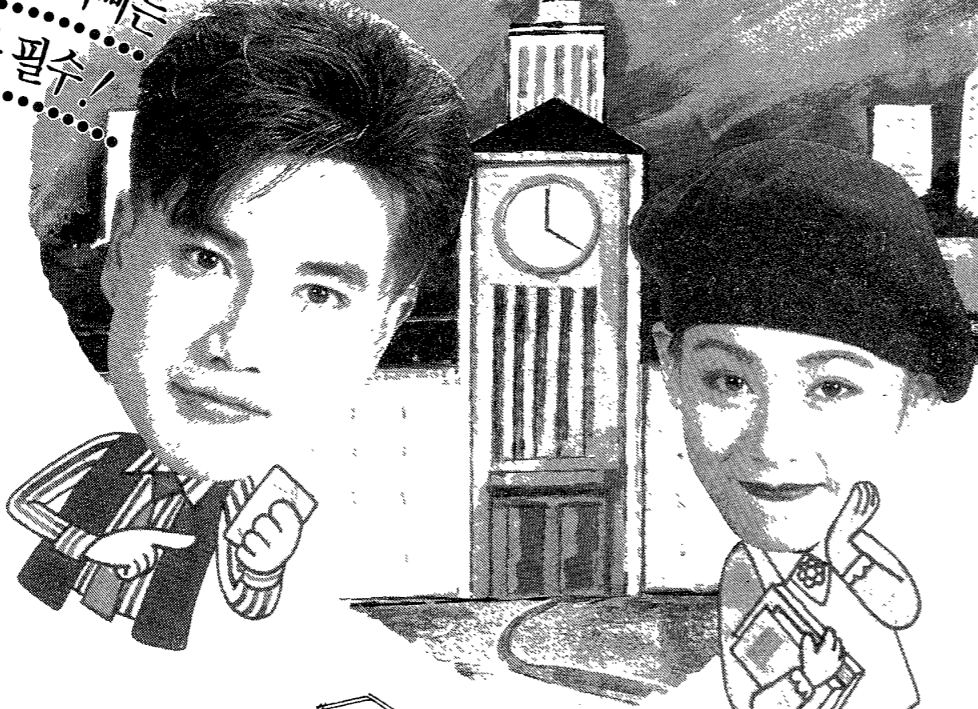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용도가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하드웨어의 성능비교이다. 이는 크게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디스크용량, BUS구조, 비디오 처리방식, 한글처리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IBM PC최상위 기종에는 486DX 계열이, 매킨토시 최상위 기종에는 퀴드라 계열이 나와 있다.

다음 호에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성능구조와 구별 방법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지 동 철

(대성교육출판 전산편집실 컴퓨터공학과 94학)

캠퍼스에서든 때때로 교양이 필수!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있는 느낌

삼성위드미 43%▶25% 대학 대 할인캠페인

기간: 3/7▶3/31

■판매조건 : *신용할부판매
*최고 43%까지 가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특 전 : 삼성위드미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예쁜 공중전화카드를 드립니다.

●구입문의 :

유평전자: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19-7
TEL: 277-6300



●도시실에서 - 자기 바쁘거나 돌아와도 좋고! 그외 교내, 도서관에서 만나자구! 배려받으며 우정도 쌓이고 학문도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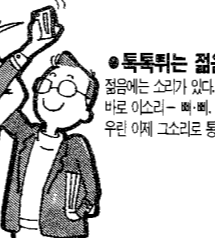
●최고의 입학 선물이었어! 입학선물로 받은 책이 이렇게 오손할 줄이야! 영어, 수학! 정말 고맙습니다!



●일일 - 할인! 할인! 할인! 오늘 오늘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그날 그날! Hot Line!



●동아리 모임에 - 오늘 모임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그날 그날! Hot Line!



●특별하는 젊음의 소리! 젊음에는 소리가 있다. 바로 이소리! - 최, 최, 최! 우린 이제 그소리를 통한다!



●비비는 만능해결사? 사소한 일로 다툰우려, 사소한 일로 다툰우려, 슬며시 해결사! 슬며시 해결사! - 그가 먼저 비비를 보내면! 그가 먼저 비비를 보내면! 비비는 학원이지 뭐!

세계로 가는 강이 - 일본 편

일본인 평가기준 양면성 탈피해야

역사왜곡으로 진실모르는 일본인 다수

한·일 평행선, 교차선 되도록 편견없어야



◇지하철, 하루구조 그리고 도쿄시민들의 질서외식이 조화돼 일본의 교통은 원활하다.

우리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35년간 혹독한 일본 식민지정복을 한 지도 어떤 반세기 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복합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의 양면성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 여행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과 일본인들을 칭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의 소심함과 기회주의, 배타성과 집단이기주의, 맹목성과 순종성, 일사불란함과 청결성 그리고 잔인성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도 한다. 또한 그들의 뛰어난 환경적응력, 이면도로까지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음을 볼 때 얼마의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된다.

필자는 지난 1월하순 일본의 도표를 중심으로 일본의 하루구조(Infra structure)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다. 도쿄에 체류하면서 차량의 경음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이는 점과 황색신호에 급정거를 해서 브레이크 마찰음이 들린 적도 없었고 자동차 충돌 모습이나 운전자끼리 노상에서 다투는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출퇴근 무렵의 러시아워에 교통정리를 위해 길가에 많이 있을 직한 교통경찰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더욱 부러웠던 것은 서울보다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열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없이 조화롭게 질서를 지켜나가는 점이였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잘 발달된 지하철과 기타 조화된 하루구조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도쿄시민들의 질서외식과 높은 교통문화수준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든 우리는 왜

일본인들을 양면성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일본과 일본인들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명치유신 이후부터는 무엇이 일본인을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일본문화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세기초에 들어와 소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부추김과 압력을 받아 일본역사중 8세기 이전의 한일관계에 관한 역사를 상당부분 왜곡하였다. 이와 같은 왜곡은 일본의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한국사람을 민족적으로 멸시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역사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은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남반부는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북반부는 옛날부터 중국에 의해 점령되어 왔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대체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침략자가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조작하는 것이 오랜전부터 활용되어 온 수법이다. 통상적으로 그 구실이란 있지도 않은 어떤 불의를 시정하겠다는 거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원상을 회복한다는 거 하는 따위의 형태를 취한다. 19세기말에 서양열강의 식민주의를 흉내내어 일본이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런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서 새로 형성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앞에서 언급된 한국의 남쪽지역은 4, 5세기에 걸쳐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한국의 북반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 점령되어 왔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말은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그 존재를 주장할

이제 대학사회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대학인의 모습을 기대하며 교수들의 말을 빌어 세계의 사회·경제·문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강'의 편견을 없애라. (원정자)

수 없고 일본은 한국을 되찾아야 할 역사적 의무까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19세기말부터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일본인들은 이런 종류의 조작된 이야기에 의해 조직적으로 세뇌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지식층에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진실을 모르게 되어 버렸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 몇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이 역사에 관한 잘못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앞으로 1백년 이상 걸릴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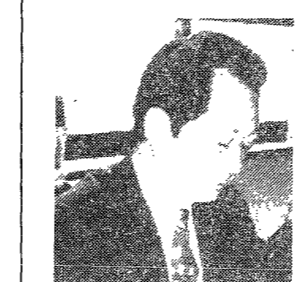
그 때까지는 한국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재구성함으로써 명치유신 이전까지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자. 한국과 일본의 두 국민들 사이에 이른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국제화 세계화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편견과 역사의 왜곡 평가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은 1980년 이후 세계최대 자동차 생산국가가 되었다. 1992년만하더라도 연간자동차 생산대수는 1천2백여만대이며 그 중 6백50여만대를 해외 주요시장에 수출하고자 나머지 5백50여만대는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일본내에서 수입판매되어지는 외제승용차는 단지 20여만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의 분노에 찬 불만과 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시장의 폐쇄성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외주시할 필요가 있다.

차수련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본사주근)

달 하나 천 경애

가치관 정립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며 생명(生命) 그 자체이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사느냐라는 물음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인생가치관(價値觀)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진다. 이러한 생애에 대한 가치의식이 명확해 질수록 어떠한 안개와 같은 생의 목표가 밝게 비춰지게 된다.

왜 사느냐라고 할 때는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不安)심리(心理)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파악하게 된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안정적 심정으로 전환되어 자기발전(自我發展)을 위한 가치관(價値觀)이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서 인류존재가 추구해낸 외적인 추구가 끝나는 종교의 발생을 초래한 것이다. 이것은 ①천궁(天功)이라고 표현되는 우주삼라만상에 대한 무지(無知)무명(無名)으로부터 불안(不安)이 나타나서이고 ②또 하나는 가부장(家長)적 서부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 숭배적 지배원리에서 나타난 제정일치(祭政一致)시대에서 신숭배로 굳어지게된 것이고 ③내세적(來世的) 기원(祈願)과 더 살고싶다는 생의 애착(愛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탈(解脫; Vimutti)을 위해서 ④모든 일체 것으로부터의 이교(離苦得樂)을 위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종교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론적 사유의 내적인 전개가 철학(哲學)의 발생으로 이것은 삶의 갈등과 욕구와 무지로부터 탈출을 위한 맹목적인 종교와는 달리 구체적 현안을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 이론의 출발이다.

종교와 철학은 그 종교적 심층은 철학적이론의 명쾌한 뒷받침 없이 밀박된 독과 같은 것이고, 그 철학적이론은 신성한 종교성인 착하고 고운 심성의 정화(淨化)라는 실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사 이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자인 철학과 종교의 밀접한 결속없는 관계는 결국 인간개인의 완성(完成)과 사회일반의 자정(自淨)에 그 뜻이 있는 것인데 그 완성과 자정의 역할을 윤리(倫理)도덕(道徳)이라는 가치관(價値觀)의 정립에 그 뜻이, 의미가 모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때 스스로 가치의식을 세우고 삶에 대한 뜻과 말을 갖춘 덕성(德性)있는 사람은 윤리도덕적 품성을 스스로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철학적인 생의 사유가 종교적 심성의 정화를 구족(具足)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초봉의 메마른 대지(大地)를 살찌우는 강로수같은 불비에 새로운 인생을 출산하려는 모은이들에게 삶의 뜻과 맛을 위한 가치관이 속히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조용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문화단신

◇나는 다만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주인공 지훈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공상을 많이 하며 지낸다. 성장을 하면서도 멈추어 지지 않는 공상 때문에 무의미의 세계에서 탈피하지 못하다가 무의식의 도움으로 시골에 적용하게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틀과 싸우기 시작하고...예술극장 한바탕. 문의 765-1799. 3월31일까지

◇불의 가면-권력의 형식...권력·성적욕망·지식을 삼각구조로 배치하고 상징과 은유로 현대사를 묘사한, 독재철학과 이성주의의 대결구조가 주제다. 성적욕망과 폭압은 이 작품에서 권력과 지식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렛대로 묘사된다. 압구정동 실험극장. 문의 515-7661. 3월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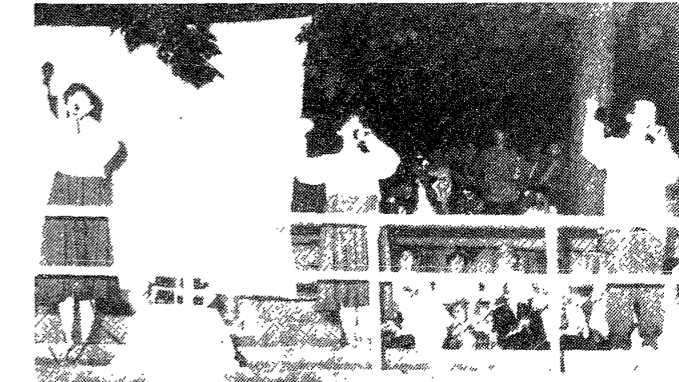
◇전남 여수-순천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한국문화연구소와 한국문학연구소는 김승옥선생과 목포대 국문과 허정만 교수와 함께 '김승옥의 작품세계 및 '순천문학의 어제의 오늘을 알아볼 수 있는 제20차 문화기행'을 떠난다. 3월19일~20일(1박2일). 참가비 5만원. 문의 547-5725

◇우리마당 영화회 개최...비디오 제작과 16밀리 영화제작을 중심으로 강의 모임기간 3월10일까지 문의 313-7169.

노래단 '희망새' 구속과 이후 상황조명

시집 '붉은 산...' 참조로 '희망새' 구속

"민족예술에 쫓겨가는 을가미일 뿐"



다주통일을 위한

미즈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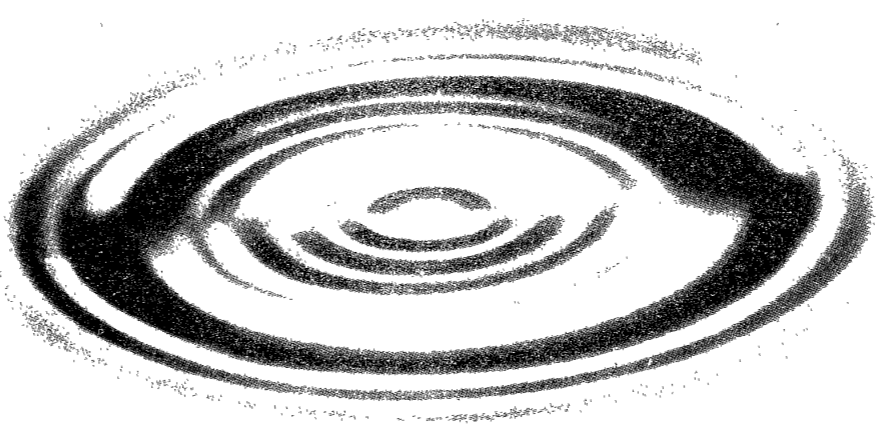
◇노래단 '희망새' 탄압은 민족예술과 문화에 대한 탄압으로 까지 보인다.

북한 얘기한다고 빨갱이 좌경공분자로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는 세상이 무슨 문민정부라고...
어느 신문기사의 여론광장에 실린 글이다.
이런 글이 나오게 만든 사건은 지난날 22일 노래단 '희망새'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퍼스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등 44점을 압수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들은 지난 92년 12월 컴퓨터통신 처리안 등에 신문 모니터 동호회를 개설하고 이를 93년 10월 사회비평동지회 '희망'터로 개칭한 뒤 이미 활동중이던 '희망새'라는 노래단을 끌어들여 이적표현물인 오봉숙 시인의 서사시 '붉은산 검은피'를 컴퓨터 통신에 띄우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수사, 내역에는 오점이 남아 있었다.
컴퓨터 통신의 자유까지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한 오봉숙 시인의 '붉은산 검은피'라는 시집은 시중의 문란한 서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안당국이 극단 '희망새'를 곤경에 빠뜨린 컴퓨터 통신 전자계시판에 실은 '아침은 빛나라' 작품내용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속에서 식민지 소작농 아들이 쓴 것이 빨치산으로 변해가는 모습과 미군이 저지른 전방 화순탄광 학살사건을 저해하던 역사 속에서 밝혀내어 자주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희망새' 단원들이 구속되었는가?
노래단 '희망새'는 대화회에서

는 꽤나 유명한 극단이다.
이들은 민중가요를 주로 불러 대하기의 민족문화를 추구해온 이들이다.
이번에도 민족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음악무용서사시극 '아침은 빛나라'전국순회 공연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공연연수가 불확실하게 되었다. 공안당국은 군사정권보다 더 수준높은 문민정부의 교묘한 술책이고 방화공작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이것은 더 크게 확산되어 극단 '희망새'의 탄압이 아닌 민족예술과 문화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보인다.
소위 문민정부 시대라고 부르는 이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철저하게 위장된 무기를 사용하여 5·6공 시대의 군부독재 못지않은 남북대립 이데올로기만을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근절돼야 되지 않았는가?
민중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 예술활동을 폭력혁명 선동대로 매도,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시대는 진정한 문민정부의 문란한 서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극단 '희망새'는 분주하다.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는 갈망하는 민족예술 단체를 그리고 40만 통신인들과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 문민정부의 어떠한 방화공작이 강행되더라도 대중과의 약속인 이번 공연 음악무용서사시극 "아침은 빛나라"의 예술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희망새 단원의 구속상황과 함께 민족문화에 대한 탄압이 아닌 진정한 민족문화의 장을 펼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임수정 기자)

행동하는 태평양

수질오염의 주범이 세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평양 중앙연구소 이종균, 심영철 연구원

반드시 물을 깨끗이 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실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 최초의 100% 식물성분 세제, 페백-세척력은 일반 세제보다 앞서면서 혁신적으로 수질오염을 줄인 세제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머지않아 보다 완벽한 무공해세제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여 우리 물을 살리는 일-이러지만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도전해 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없다' 태평양은 이런 젊음, 이런 실험정신을 기업 경영의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공업계 최초로 선연한 무한책임주의- MFS세계, 토코닉스, HGSQ 등 신물질의 자체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화장품회사의 반열에 오른 것 모두 이 실험정신의 결과입니다.

실험정신으로 시작합니다 무한책임으로 이어 갑니다.



무·한·책·인·주·의 서비스/품질/환경
(주)태평양 대전공점
44 환경관리 모범업체 선정

동국기네스

2 홍치2년명청화백자승죽문호
弘治二年銘青華白磁松竹文壺



지정번호: 국보 제176
크 기: 높 이: 48.7cm
입지름: 13.2cm
밀지름: 17.5cm
시 대: 조선(1489)
소 장: 본교 박물관

꽃공양 드리던 꽃병
“조선초기 최고수준”

청화백자라는 것은 백자 태토(胎土) 위에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안료인 회청(回靑, 回靑)으로 그림을 그린 뒤 백색의 유약을 발라 1250~1400°C의 높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이다. 즉, 순백의 그릇 바탕에 푸른 색의 문양을 가진 도자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화백자는 15세기경에 처음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전기기를 통하여 가장 사랑받는 자기로 부리를 내리게 되었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된 이 항아리는 청화백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명품이다. 이것은 지리산 화엄사(華嚴寺)에서 전래되어 왔던 것으로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릴때 사용되던 꽃병이었다고 한다.

이 도자기가 지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높이가 48.7cm나 되는 대형

항아리로서 딱 떨어진 어깨와 급격히 좁아지는 몸통이 이루는 특이하면서도 늘씬한 형태는 당당하고 시원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견고하고 맑은 백자의 색과 검푸른 회청이 보여주는 뛰어난 발색(發色)이 돋보이며, 표면에 그려진 소나무와 대나무의 사실적이고 활달한 묘사는 필력이 뛰어난 화원(畫員)의 작품임을 확신케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조선초기 청화백자의 최고 수준을 일러주고 있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더구나 구연부(口緣部)의 안쪽에 '홍치2년'(1489)이라고 연대를 밝히고 있어 도자기사연구에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연대가 있는 청화백자 중 최고(最古)의 작품이다.

박도화
(본교 박물관 연구원)

◇ '이탈의 감독' 유현목 교수를 만나



한국영상자료원에서 3월을 '유현목감독의 날'로 정했다. 유현목감독은 한국영화에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여를 해 자서적 발자취라 평가되고 있어 그의 작품을 활동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상영하게 된 것이다.

55년 '교차로'로 데뷔했고 현재까지 모두 42편의 작품을 연출한 유현목감독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진흥을 마친 것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당시의 유명한 문학작품을 유현목감독의 독특한 해석을 담아 예술성이 뛰어난 그의 작품들은 주제면에서 '인간의 운명론' '신과 인간의 갈등' '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 등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 작품상영일정
△9일=마차로 온 손님들(67년)
△11일=카인의 후예(68년) △16일=0리탑(68년) △17일=수확여행(69년) △18일=나도 인간이 되련다(69년) △23일=불꽃(75년) △24일=문(77년) △25일=옛날 옛적에 웨이(78년) △30일=장마(79년) △31일=사람의 아들(80년)

한국 리얼리즘 영화를 마련한 감독

"UIP는 우리 영상문화의 오발탄"

'후배를 위한 한마디'라는 질문이 하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가 보다.

3월이 '유현목 감독의 날'로 정해져 기자가 청한 인터뷰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유현목(현국영화회)교수는 후배감독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덧붙이기 위해 인터뷰가 끝난지 한시간 후에 다시 전화로 기자를 찾았다.

"지금의 젊은 학도들은 정보와 제작비면에서 상당한 행운을 겪고 시작하는 셈이다. 참여기회도 많아졌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21세기는 영상문화를 중심으로한 세계 '문화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며 기회만 믿지 말고 종전보다 "더 열심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영상자료원에서 상영하는 유교수의 영화는 모두 13편이다. 유교수가 제작한 42편의 영화중에서 남은 모두를 상영하는 것인데 보관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의 작품을 전부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발탄'은 6.25전쟁이후 자유당 탈기의 빈곤과 목표상실을 그려내다하여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전형으로 불린다.

자신이 영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 한만큼 후학중에서도 정지영, 박광수, 장선우감독등 영상과 경향을 보이는 이들에게 관심을 표한다.

유교수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죄와 벌'. 대학을 다닐 때 회화에 매료되었던 그는 이 영화를 보고 영화쪽으로 진로를 바꿔 버리기까지 했다.

유교수는 '죄와 벌' 대학을 다닐 때 회화에 매료되었던 그는 이 영화를 보고 영화쪽으로 진로를 바꿔 버리기까지 했다.

오점"이라는 유교수는 희망이 담긴 소식에 기뻐한다.

"대기업에서 영화제작에 눈길을 들었습니다. 제작비면에서 할리우드에 밀리는 현재로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한 '서편제' '투깝스'등의 요즈음 한국영화를 보고 있다면 흥행성과 예술성을 갖춰야 관객이 인정해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한다.

"흥행성과 예술성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조건입니다. 관객을 의면하고 고답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했던 과거의 이른바 '우수영화'는 한국영화 전체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유교수는 '일본영화이야기'라는 책을 썼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영화의 수입을 반대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 관객들에게 그들의 생활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도 선별적으로 선택해 상영하기를 바란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들을 아는다는 것보다 영화가 유리합니다."

고교에 접어들어 유교수는 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금년안으로 또 하나의 작품을 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 베를린 영화제에서 '90년대 영화작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기가 있었다. 21세기에도 영화선택이 '감독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고교, 장 르노와르등의 거장들을 운운하며 맺은 결론은 영화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라는 것이었다.

1948년, 세르게이의 카메리안네프론으로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라는 이론이 성립된후 많은 사람들은 감독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밀려드는 외화속에서도 한국영화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인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감독'을 만나볼 때가 지금, 3월이다.

(이유리 기자)

영학의 패러독스

웨이 왕 감독 '조이 럭 클럽'

여성억압범인, 가부장구조속 여성위치
"딸은 어머니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 중국 이주민들이 미국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기 위한 고민과 역사를 담은 이영화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과 극복을 그린 중국인 감독이 제작한 할리우드 영화다.

여성의 삶은 오로지 여성들만의 문제일까? '조이 럭 클럽'은 여성작가 에이미 탕이 쓴 베스트셀러인대 윌리엄 스톤이 제작하고 역시 남성 감독인 웨이 왕이 연출했다. 물론 이 영화속의 주인공은 네 명의 여자와 그들의 네 명의 딸이다.

미국에 이민온 중국 여인 네명이 자주 만나 삶을 얘기하는 사교모임, '조이 럭 클럽'은 바로 이들 이주민들이 미국내에서 어떻게 중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역사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영화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을 담은 페미니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남성의 억압에 대항하여 여성이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구조와 싸워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그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여성들 자신이다.

한 가정내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매어 풀어 내기란 쉽지가 않다. 이 영화는 그중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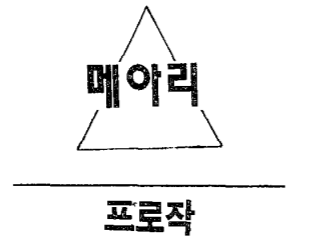
네 여인은 중국의 전근대성과 남성적 권위질서에 나름대로 도전의식을 지니다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도피(?)해온 사람들이다. 미국은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민족에게 중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역사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영화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을 담은 페미니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남성의 억압에 대항하여 여성이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구조와 싸워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그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여성들 자신이다.

한 가정내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프로자(Prozac)이란 약이었다. 지난 88년 처음 약을 내놓은 미국의 ELLILLY제약회사는 프로자의 판매만으로 지난해 12억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1천% 성장율을 기록하며 자국내 약품시장을 점령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자의 효능이 신체의 병을 고치는데 있지않다는 점이다. 이 약은 스트레스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안겨준다고 한다. FLUOXETIN-HYDRO CHLORID를 사용한 이 약은 환각제와 달리 부작용도 없어 자국내 상용자만도 1천2백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로자의 출현과 대중화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던져준다. 인간의 정신적 구원역할은 지금까지 종교에 맡겨져왔다.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며 사명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현상은 우리에게 종교의 역할을 의심하게한다. 종교간, 교파간의 갈등과 개신교 종파간의 이단논쟁으로 빛어지는 극심한 갈등이 그것이다. ▲얼마전 이러한 갈등은 참극을 낳았다. 교리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광신적이고 배타적인 극단주의가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문제 연구가 탁자 피살사건은 당초 예

상대로 종교를 앞세운 광신이 부른 참화였다. 과열상태로 일컫는 광신의 강요가 부른 예고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규범과 상식조차 다종교, 종파에 묻혀지나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교인들의 각성은 뒤따라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편향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종교정책은 제2의 탁명환사건을 부르고 있다. 본지 지난해 8월 2일(제)에서 잘 나타내주듯이 신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는 종교가 아예 받기되어 있다. 종교가 종교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본연의 기능을 올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친 현대인들은 종교대신 프로자(Prozac)를 찾아헤메지도 모를 일이다. (주)

최경인
(40)



신인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넥타이를 풀어라!

고정관념의 옷을 벗고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 「현대자동차」

2000년대 미래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회의/ 바뀌었다는 차, 키트같은 무인차, 날오는 차를 개발하는 등 별별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시절 할리우드의 자부하던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 "말도 안돼 / 실현가능성이 없잖아?" 이런 말들은 나의 고정관념이었음을!

그리고, 이처럼 넥타이를 풀듯 자유로운 발상의 소유자들이 바로 엘란트라, 쏘나타 등을 개발한 주역이었음을!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질수록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